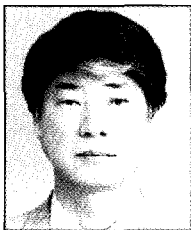


Establishing Complete Denture Occlusion(Overview of the Complete Denture occlusion)



최 대 군

1974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79-1986 : 일본대학교 치학부 보철학교실 수학
 1996-1997 : 미국 네브라스카대학교 치과대학 방문교수
 1986-현 재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교수

교합(Occlusion)이라는 용어에는, 상하악의 치아를 근접시키는 동작, 상하악의 치아를 접촉시켰을 때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움직임, 즉 교합접촉(occlusal contact)에 동반하는 여러 가지의 기능 및 치아의 형태학적인 배열과 치아와 각 저작계 기관과의 상호관계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교합의 이상(異常)을 치료하는 임상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치과교정학에서는 평형이 얻어져 있는 교두(咬頭)와 와(窩)간의 관계가 정상일 때의 교합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치과보철학에서는 교합하는 치아가 인공치인 경우가 많다. 더우기 총의치인 경우는 그 인공치가 일괴(一塊)의 의치상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악의 측방운동 및 전방운동에 있어서, 의치의 이동, 탈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좌우측의 치열이 교합접촉을 하도록, 교합평형이 얻어져 있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평형교합(balanced occlusion)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형태학적인 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밖의 임상치과학에서도, 각각의 학문의 정의에 기초한 치료목적에 부합되는 형태학적인 교합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학문에 기초하는 교합의 정의와 정상교합의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교합의 치료에 있어서는, 예를들어 치료방법이 다를지라도, 교합을 기능적으로 정상교합이 되게 수복하는 것이라야만 하기 때문에, 형태도 중요하지만 기능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

총의치는 어디까지나 인공물이기 때문에, 자연치와는 형태학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달라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총의치의 교합을 재현할 때는, 가장 기능적인 것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나, 이를 위하여는 총의치의 형태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들면, 교합접촉에 있어서, 그 접촉부위, 접촉회수, 접촉율 및 접촉의 특징등은, 장착의치의 Type, 치조계 형태, 악간관계, 악간거리, 사용된 인공치 교두의 형태, 인공치의 배열 위치, 교합평면 및 저작식품등의 요인에 의하여 달라진다.

본 심포지움강연의 주제가 총의치교합의 확립이라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세부 주제로 나뉘어 있으며, 본인이 맡은 주제는 총의치교합의 개관(概觀)-Overview of complete denture occlusion-이기 때문에, 본 강연에서는 총의치교합의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즉 인상면, 악간관계, 인공치의 수평-수직적인 위치와 교합접촉에 이르는 개괄적인 점에 대하여 강의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주제별 연자에게 맡기고, 질의 토의시간에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